

파라텍스트디자인의 감성적 표현에 관한 연구

잡지 키포크의 디자인과 문화적 영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motional Expression of Para-texte Design
Focusing on the design and cultural impact of the magazine Kinfolk

주 저 자 : 김학민 (Kim, Hak Min)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sayyess@hycu.ac.kr

Abstract

This work examines the traditional meanings and concepts of para-text and various concepts of changing para-text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then examines the cultural meaning and influence of para-text design based on the results of various cases and analyses. At the heart of the case, the magazine Kinfolk is a paper book and culture that best describes the changed paradigm of Portland, starting with everyday life and appearing in the form of a magazine, and has had a wide range of cultural influences, from other print media to advertising and media to parts of daily life. As the form of a small book called a magazin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to a new para-text, we could see that para-text could be a design methodology that can redefine the concept and meaning of a book in the future digital environment.

Keyword

Para-texte(파라텍스트), Para-texte Design(파라텍스트 디자인), Book Design(북 디자인), Kinfolk Magazine(잡지 키포크)

요약

본 연구는 파라텍스트의 전통적 의미와 개념을 살펴보고 디지털환경에서 변화하는 파라텍스트의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본 후, 다양한 사례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파라텍스트 디자인이 가진 문화적 의미와 영향력을 고찰한다. 사례의 중심으로 살펴본 잡지 키포크는 포틀랜드의 일상 삶으로 부터 시작되어 잡지의 형태로 나타난 이후, 변화된 개념의 파라텍스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종이책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었고, 이는 다른 인쇄매체는 물론 광고와 미디어, 그리고 일상 삶의 부분까지 다양한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잡지라는 작은 책의 형태가 새로운 파라텍스트로 발전되고 구현되면서 작게는 인간의 일상 삶, 크게는 문화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서 미래의 디지털환경에서 파라텍스트는 책의 개념과 의미를 새롭게 정의 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배경

- 2-1. 파라텍스트의 개념
- 2-2. 잡지 키포크와 파라텍스트

3. 키포크 스타일 디자인 사례연구

3-1. 시각디자인 사례연구

3-2. 공간디자인 사례연구

4. 파라텍스트디자인과 문화

- 4-1. 파라텍스트와 문화적 감성
- 4-2. 미래출판편집디자인과 파라텍스트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쇄술의 등장 이후 책이라는 개념은 중세시대의 종교적 기록이나 특정계층의 전유물이라는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지식의 전파와 인문교양의 확대라는 인류사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물리적 성질은 읽혀지는 대상에서 보이는 대상으로 전이되며 다양한 책의 소비문화를 만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환경은 이러한 물성을 가진 책의 존재를 그 근본부터 모호하게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의 인쇄출판산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책이라는 대상이 단순한 개념을 넘어 다양한 문화적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의 미래가 불투명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책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문화적 코드로서의 책을 새롭게 정의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파라텍스트는 책의 근본목적인 본문 이외에 책을 구성하는 내적 외적 요소로서 책의 다양한 모습을 외형적으로 구현하는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파라텍스트의 정의를 다양하게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통적 책의 개념이 새로운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디지털시대를 앞둔 이 시점에서 파라텍스트의 새로운 관점과 변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불완전한 책의 미래를 보완하고 나아가 사강산업으로 가고 있는 인쇄출판시장, 그리고 발전하는 매체에 대응하는 편집디자인분야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파라텍스트디자인이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좋은 사례 중의 하나인 잡지 키포크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문화적 확산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에서는 첫번째로 파라텍스트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알아보면서 종이책이 발전해오면서 형성된 파라텍스트의 개념이 전자책의 등장으로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고찰해본다. 이론적 배경의 두 번째로 잡지 키포크의 파라텍스트를 다각도로 분석해보고 하나의 잡지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키포크의 파라텍스트가 형성되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좋은 디자인이 만들어지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도 고찰해본다. 사례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시각디자인영역과 공간디자인영역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파라텍스트가 문화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미래 문화적 가능성도 유추해본다. 이러한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파라텍스트라는 디자인의 작은 영역이나 문화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성을 도출하고 문화적 순환구조를 만드는데 필요한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해본다.

2.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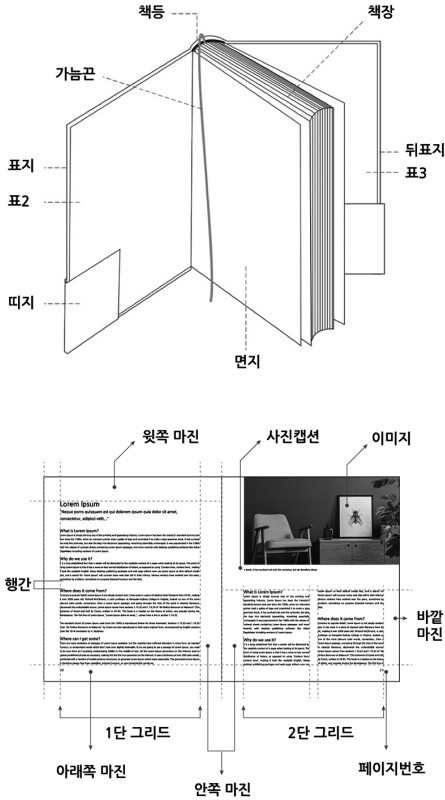
2-1. 파라텍스트의 이해

2-1-1. 파라텍스트의 기본적 개념

파라텍스트(para-texte)¹⁾는 제라르 주네트(Gerard Genette)²⁾의 '문턱(Seuils)'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파라텍스트는 책의 제목, 저자명, 서문, 각주 등 본문을 이루는 주 텍스트를 보완하는 텍스트를 말한다. 주네트에 의하면 파라텍스트가 없는 텍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라텍스트의 방식과 형태는 시대, 장르, 문화적 배경, 작품의 성격, 편집디자인, 재료와 물성 등 다양한 외형적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라고 설명한다.³⁾ 그리고 그것은 안과 밖 사이의 규정할 수 없는 영역이자 서로의 방향을 향하는 확고한 경계가 없는 영역이다. 또한 리처드 맥시(Richard A. Macksey)⁴⁾에 의하면 이 용어는 책 내부(peritext)와 외부(epitext)에서 그 책을 독자들에게 매개시키는 의식적 경계의 장치이자 관례로 제목, 부제, 필명, 서언, 헌사, 제사, 서문, 중간 제목, 주석, 에필로그, 후기 등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책을 이루는 구성요소 중에서 본문을 텍스트라고 한다면 그 본문 텍스트가 책이 되는데 필요한 주변적 요소들을 파라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⁵⁾

- 1) 파라텍스트에서 파라(para)는 사전적 의미로 '~을 보충하는, ~에 종속하는, 근처, 양쪽, 이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다. 신영한 대사전, 교학사, 2006 p.679
- 2) 1930 파리출생, 프랑스의 문학이론가. 위키피디아. www.wikipedia.com
- 3) 네이버 지식백과, 파라텍스트(Para-Texte), 문학비평용어사전, 국학자료원, 2006.1.30.
- 4) 1931 미국출생, 존스홉킨스 대학교수이자 인문학센터 소장을 역임하여 비판이론, 비교문학, 영화이론 등을 가르쳤다. 위키피디아. www.wikiped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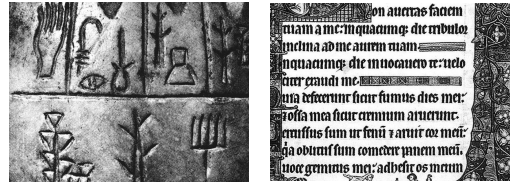


[그림 1] 책의 구조 및 시각적 파라텍스트 요소

2-1-2. 파라텍스트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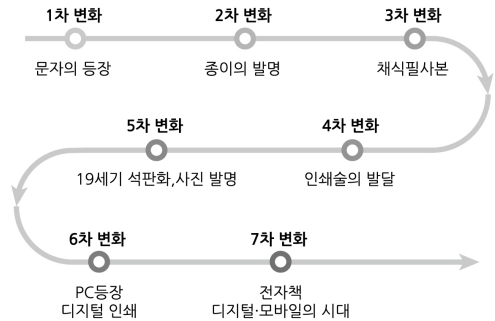
파라텍스트의 역사는 책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최초의 문자를 기록했던 수메르인들의 점토판에서 중세 필사본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문자와 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록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 기록들을 쉽게 읽고 전달하기 위하여, 또는 원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보조적인 표현수단들이 있어왔다. 영역을 나누기 위한 점이나 선, 문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권위나 성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한 화려한 장식들, 많은 양의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제본방식, 그리고 종이나 가죽, 잉크 등의 물리적 재료에 이르기까지 텍스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이상으로 갖춰져야 할 것들이 많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인간은 본능적으로 파라텍스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5) 엄인영, 오감을 통한 종이책의 파라텍스트 개념확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2016, p78-80.



[그림 2] 수메르인들의 설형문자와 중세 필사본

구텐베르그의 인쇄술과 산업혁명 이후 등장한 석판화를 비롯한 다양한 인쇄 매체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전에 없던 파라텍스트의 형태들을 만들어 내었으며 19세기 이후 사진이나 컴퓨터 등의 출현과 확산으로 파라텍스트는 이제 종류와 경계를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그림 3] 매체발달에 따른 책의 발전과정

2-1-3. 전자책의 출현과 파라텍스트의 다변화

전자책의 출현은 파라텍스트의 역사에서 가장 변화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종이책의 형태가 사라지면서 독자들이 책을 선택하고 텍스트를 읽는 방식까지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2008년 아마존의 '킨들'(Kindle)⁶⁾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디지털기반의 독서플랫폼들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전자기기도 함께 발전하면서 전에 없던 파라텍스트의 형태와 경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마존에서 킨들을 개발한 제이슨 머코스키(Jason Merkoski)⁷⁾는 그의 저서 '무엇으로 읽

6)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2007년 11월 발매한 전자책 단말기(e-book reader). 종이책보다 3~5배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며 LCD 화면이 아닌 발광체가 없는 E잉크가 장착되어 빛 아래에서도 또렷하고 눈이 피로하지 않다.

7) 킨들(Kindle)의 개발 책임자. MIT에서 물리학과 이론

을 것인가'에서 당시의 읽기 환경을 '리딩 2.0'이라 명명하며 시공간을 초월한 상호교류성 읽기방식을 정의하였다. 전통적 형태의 책과 독서라는 인간행위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마존의 킨들은 책의 형태나 읽기방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의 디스플레이와 전자잉크의 사용으로 완전히 새로운 물성의 파라텍스트도 만들어내었다.



[그림 4] 아마존킨들과 국내 독서플랫폼 인터페이스

그러나 사라질 것만 같던 종이책은 최근 등장한 레트로 또는 뉴트로(Newtro)⁸⁾ 문화로 대변되는 지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문화적 열풍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로 정보를 접하는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종이책의 인기는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독립출판이나 새로운 공간과의 협업을 통해 종이책도 다양한 변화와 실험을 시도하면서 하나의 문화매체와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현대카드에서 실행한 'The Book' 프로젝트는 신용카드를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개봉하는 과정을 책과 독서라는 경험과 연결시켜 큰 호응을 얻었다. 카드의 평범한 패키지를 책이 가진 파라텍스트를 통해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치로 만든 것이다. 또한 그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전시 디스플레이는 파라텍스트가 공간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어떻게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파라텍스트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사례인 것이다. 이처럼 파라텍스트는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책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과 기능에서 책이 놓이는 공간, 책이 전달되는 상황, 그리고 책에서 느껴지는 오감의 감정까지, 책이 존재하고 읽혀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하게 된다. 이점에서 파라텍스트와 디자인은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수학을 전공했고 모로토라에서 최초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했다. www.jasonmerkosi.com

8) 새로움(New)과 복고(Retro)를 합친 신조어로, 복고(Retro)를 새롭게(New) 즐기는 경향을 말한다.



[그림 5] 현대카드의 The Book 패키지와 공간디스플레이

매체의 변화로 종이책 기반의 파라텍스트의 총량은 줄었지만 그 역현상으로 또 다른 문화와 파라텍스트, 그리고 디자인의 공존기가 온 것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파라텍스트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파라텍스트의 유형분류

구분	내용
언어적 형태	제목, 저자, 서문, 각주, 에필로그 등
시각적 형태	판형, 서체, 자간, 행간, 여백, 일러스트, 사진, 디지털 인터페이스 등
물리적 형태	커버, 종이, 띠지, 가름끈, 패키지, 디지털 디바이스 등
공간적 형태	서점, 카페, 라운지, 온라인 플랫폼 등

2-2. 잡지 킨포크와 파라텍스트

킨포크(Kinfolk)⁹⁾는 2011년 미국 북서부 중소도시 포틀랜드(Portland)의 주민이었던 네이션 윌리엄스(Nathan Williams)¹⁰⁾와 케이티 설 윌리엄스(Katie Searle Williams) 부부가 동네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자신들이 소소한 일상을 잡지로 만들어 내면서 시작되었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미니멀한 사진과 글, 그리고 감성적인 기조의 편집디자인으로 담아낸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킨포크는 순식간에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열렬한 공감을 얻으며 현재 4개 언어로 100여 개국에서 발행되고 있다. 이후 킨포크는 계속해서 잡지문화에 새로운 반향을 이끌어냈다. 지역의 전통기술과 꾸밈없는 개인의 삶의 방식 등 일반잡지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움직임과 소리를 담아낸 것이다.

9) 사전적 의미는 '친척, 친족 등 가까운 사람'

10) 골드만 삭스에서 금융매니저로 일하다가 고향 포틀랜드로 돌아와 작은 출판물 제작을 제작하기 시작함.

포틀랜드 특유의 힙스터¹¹⁾적인 삶과 일상이 지면과 다양한 형태의 SNS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면서 키포크는 키포크 라이프¹²⁾, 키포크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문화현상까지 만들어냈고 키포크에 실리는 사진들은 전세계 젊은이들에게 인스타그램 등의 SNS매체에 사진을 찍어 올리는 스타일에 있어서의 밴드웨건 효과¹³⁾까지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했다.

키포크 스타일의 핵심은 키포크 잡지의 스타일이다. 잡지의 스타일이란 것은 잡지의 내용과 파라텍스트 디자인에 의해 결정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키포크는 잡지의 구성과 레이아웃에 매우 절제된 사진과 글, 그리고 독특한 여백과 색감을 사용했다. 덴마크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특유의 합리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의 정신과 일본의 동양적 절제미도 혼합했다.

키포크 잡지의 구성요소들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우선 표지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사진이 미지를 중심으로 상하단에 흰 여백을 남기고 텍스트들이 배치되어 있다. 모던하면서도 전통적 느낌을 가진 세리프(Serif)체의 타이틀은 사진 상단에 절묘하게 겹쳐져 있고 하단의 텍스트는 중앙정렬을 기본으로 한 문자블럭이 형성되어 있다. 모던디자인 이후 편집디자인의 기본이 되어 왔던 그리드의 원칙을 깨면서도 매우 정교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다. 내지에서는 독특한 분위기를 가진 사진들과 함께 표지와 마찬가지로 그리드를 자유자재로 넘나 들면서 여백과 타이포가 조화롭게 관계를 맺으며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컬러인데 채도가 낮으면서도 컬러감이 선명한 색감과 무채색과 모노톤의 색상을 내지의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표지나 내지의 사진이미지와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사진으로 표현되는 이미지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사진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키포크가 이야기하려는 삶의 이미지들이 치밀하면서도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는 톤을 유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키포크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기사의 내용이 포틀랜드 시민들의 일상의 모습을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다는 점과 전체적인 잡지의 디자인이 그

언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토속적이면서도 세련됨을 잃지 않는 디자인은 지적감수성을 유지하면서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힙스터적인 포틀랜드인의 삶과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키포크 디자인은 곧 포틀랜드의 삶이라는 파라텍스트로 표현되고 있다.



[그림 6] 키포크에 소개된 포틀랜드인들의 삶의 모습과 잡지 표지와 내지에 표현된 키포크 스타일

사람들은 이렇게 키포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 일치하는 키포크의 시각적 스타일에 공감했고 그 스타일은 다시 독자들의 일상 삶의 행동으로까지 연결된다. 키포크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일상을 꾸밈없이 드러내거나 오래된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삶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3. 키포크 스타일 디자인 사례연구

3-1. 시각디자인 사례연구

시각디자인분야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우선 키포크와 동일한 형태의 매체들을 조사하였고, 여기에서 발전한 시각디자인 매체들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키포크에서 시작된 힙스터적인 삶의 내용과 독특한 스타일의 디자인은 다른 잡지들에서 복사본처럼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장 유사한 편집디자인의 관점에서 이미지와 텍스트, 여백과 레이아웃 등 기본적인 배치의 개념은 물론이고 사진이나 이미지의 사용에서 키포크가 사용했던 감성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 11) Hipster. 큰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한 패션과 음악을 따르는 부류. 일반대중과 자신을 구분하면서 지적 우월감을 표현한다. 네이버 지식사전
- 12) 잡지 키포크로부터 영향 받아 자연친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추구하는 사회현상
- 13)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현상. 유행에 동조함으로써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심리적 현상과도 관계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 7] 잡지 표지에 표현된 킨포크 스타일

[그림 7] 에서 보이듯 킨포크의 표지디자인을 거의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다양한 잡지들은 킨포크 스타일이 출판 분야 전반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잡지들의 주제나 내용도 여행이나 취미,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킨포크의 파라텍스트가 단순히 시각디자인 차원을 넘어 콘텐츠와 문화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지면광고에 표현된 킨포크 스타일

또한 [그림 8]에서는 한권의 잡지가 아닌 단면으로 끝나는 지면광고에서도 킨포크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자사의 고유한 광고스타일을 포기하고 킨포크 스타일을 따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킨포크의 파라

텍스트가 백여 년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브랜드들의 이미지만저도 바꾸고 있는 것이다.

3-2. 공간디자인 사례연구

시각디자인 분야에서 유사한 형태와 스타일의 잡지나 지면광고 분야에서 킨포크 스타일이 표현되었다면 공간디자인분야에서는 킨포크의 파라텍스트가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고 재해석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라텍스트는 책과 함께 존재하는 평면적이고 2차원적인 개념이지만 공간으로 전이된 것이다. 최근 서울의 강남에 등장한 킨포크 카페는 평면상에 구현되었던 킨포크의 레이아웃과 컬러톤이 건축과 인테리어, 그리고 가구와 작은 소품에 이르기까지 3차원적인 디자인으로 재구성 되었다.



[그림 9] 킨포크카페와 인테리어 스타일

마치 잡지의 표지 같은 입구와 로비, 내지의 컬러와 여백을 닮은 벽면은 카페에서 시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 어우러져 잡지의 한 페이지 같은 장면들을 연출해 낸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몸을 움직이고 표정이 바뀔 때 마다 잡지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듯 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이곳의 사람들은 킨포크의 파라텍스트가 입체적으로 구현된 공간에서 킨포크의 파라텍스트를 온 감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4. 파라텍스트 디자인과 문화

4-1. 파라텍스트의 문화적 감성

파라텍스트와 문화적감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

여 우선 파라텍스트를 아이덴티티개념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20세기 초 등장한 아이덴티티의 개념¹⁴⁾은 20세기 중반 국제주의시대를 거치면서 한 집단의 이미지 통일화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평면과 입체가 하나의 이미지로 통일되는 아이덴티티 디자인프로그램은 기업의 오퍼와 디자이너들의 인위적인 창조행위에 의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키포크 스타일의 사례는 그러한 아이덴티티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책의 아이덴티티 개념인 단지 형태나 컬러를 동일화하거나 동일범위내에서 시각적으로 응용 적용하는 것이 아닌, 생각과 행동의 가치 자체가 동일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동일시된 감각은 매체와 장르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가 있다. 즉, 문화적 현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10] 인스타그램에 표현된 일상 삶의 모습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현대의 젊은이들은 이제 자신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까지도 고려한다. 이를 반영하듯 SNS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는 키포크 스타일의 사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힙스터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에도 순간적인 연출이나 일시적인 경험을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키포크의 파라텍스트가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다. [그림 10]에서 보이듯 사진이나 여행, 라이프스타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키포크의 표지사진 같은, 키포크의 기사 내용 같은 사진과 글을 올린다. 키포크의 파라텍스트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특별하게 바꾸어 주고 있는 것이다.

5G 통신과 전기에너지 등의 첨단기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 다른 한쪽에서는 지나가고 오래된 것들을 그리워하는 레트로 문화가 전성기를 맞고 있다. 아날로그 스타일의 녹슨 인테리어와 물건들, 손으로 만든 음식과 사람들이 이야기 등은 키포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평범한 포틀랜드의 삶이었다. 모두가 그리워하는 따뜻한 감성이 지면이나 공간에 표현되었을 때 문화적 가치를 가진 파라텍스트가 완성되는 것이다. 키포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적 가치를 가진 디자인이고 파라텍스트이다.

4-2. 디지털출판디자인과 파라텍스트

전자책의 등장으로 사라질 것만 같았던 종이책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성장해가는 키포크와는 달리 이미 수많은 잡지들이 폐간하거나 곧 폐간될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키포크의 발행부수와 그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 매체의 발전과는 상관없이 책이라는 가치의 존재유무는 책이 가진 내용이나 상업적 마케팅을 넘어서 문화적 가치와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파라텍스트의 역할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기술은 더욱 빠르게 발전할 것이며 종이책은 점점 사라지겠지만 책이 가진 속성, 지식과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든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콘텐츠는 지식과 정보라는 일차원적인 개념을 넘어 감성과 문화를 담는 콘텐츠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키포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하나의 책은 스타일이란 개념으로 바뀌어 다양한 문화적 형태로 전이되어 나타날 수 있다. 전통적 개념의 파라텍스트를 넘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변용할 수

14) 페터 베렌스의 'AEG 사'를 위한 디자인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있을 때 미래의 출판편집디자인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파라텍스트는 책이라는 매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또 다른 디자인의 영역이다. 전통적 의미에서 파라텍스트는 고정적 개념의 글과 종이를 설명하는 것 이었지만 기술과 매체의 발전, 그리고 시대정신의 변화와 더불어 무한한 차원의 영역으로 발전될 수 있는 무형의 개념이다. 기술보다는 콘텐츠가 기계보다는 인간이 점점 더 소중해져가는 역설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그래픽디자인은 이제 그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을 잡지 키포크의 파라텍스트디자인과 그 영향에 있는 사례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파라텍스트는 인간이 기록을 시작한 순간부터 있어온 본능적 개념이다. 정보를 전달하고 인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보조 수단이다. 어떠한 정보든 파라텍스트 없이 존재할 수는 없다.

둘째, 전자책의 등장으로 종이책이 사라지면서 파라텍스트의 개념도 모호해지고 있다. 파라텍스트를 새롭게 정의하여 디자인에 적용하고 정보와 감성의 중요한 전달매체인 책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잡지 키포크는 소소한 일상의 삶을 키포크만의 파라텍스트로 표현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글과 사진이 전달해왔던 정보전달의 역할을 감성과 문화라는 새로운 방식의 전달방식으로 구현했고 이는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 잡으며 인간 삶의 한 모습을 만들어 내었다.

넷째, 디자인은 파라텍스트의 이해와 변용으로 예측

할 수 없는 미래의 환경에 대비해야 하며 장르간의 경계를 허물고 융합되어야 한다. 파라텍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유기적인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제이슨 머코스키, 무엇으로 읽을 것인가, 흐름출판, 2014
2. 엄인영, 오감을 통한 종이책의 파라텍스트 개념확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원, 2016
3. www.dafont.com
4. www.identifont.com
5. www.alexhunting.co.uk
6. www.dezeen.com
7. www.myfonts.com
8. www.fontshop.com
9. www.theverge.com
10. www.finnishdesignshop.com
11. www.edmontonjournal.com
12. www.yatzer.com
13. www.naver.com
14. www.kinfolk.com